

한밤마을과 괴란마을의 사례 분석을 통한 당산숲 · 마을숲 복원 자료 구축

최재웅¹⁾ · 김동엽²⁾

¹⁾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²⁾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Preparation of Data for Restoration of Dangsang Forests and
Rural Community Forests from the Case Study of
Hanbam and Goiran Villages

Choi, Jaiung¹⁾ and Kim, Dong Yeob²⁾

¹⁾ National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²⁾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dangsang forests and rural community forests (RCF), and seek for a landscape management scheme. Dangsang forests and RCF have been maintained by local residents since hundreds of years ago. However, many of them have been disturbed. The case sites were derived from the twenty villages previous investigated where dangsang forests and RCF's remainrd. The two sites were remodelled to restore what have been degraded. Hanbam village has maintained its dangsang forest with good management practices, whereas the dangsang forest and RCF of Goiran village showed relatively poor management. The size of dangsang forest at hanbam village was 13,784m², and major tree species was *Pinus densiflora*. In total, 151 trees with more than 30cm in DBH were standing on the site. As a cultural activity, the dangsang festival have been held in January 5th by lunar calendar to the 2005 at the Jindongdan, a dangsang tree made of stone. The RCF of Hanbam village has disappeared due to the event of landslide in 1930, which needs to be restored. Goiran village has a dangsang forest and a RCF. The forests in Goiran village revealed many problems due to bad management practice. The prototype of the dangsang forest was deteriorated by introduced *Prunus*

Corresponding author : Choi, Jaiung,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DA, Suwon 441-853, Korea,
Tel : +82-31-299-0541, E-mail : choiju@rda.go.kr

Received : 16 June, 2007. **Accepted** : 16 August, 2007.

serrulata and the facilities for physical training. A systematic management scheme for dangsan forests and RCF's should be established with a close partnership among local residents, experts, and local government.

Key Words : *Cultural landscape, Dangsan festival, Dangsan tree, Riparian buffer, Rural landscape.*

I. 서론

우리나라 농촌은 인구는 적지만 국토경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자연경관과 전통생활문화가 남아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우리나라 40,000여 농촌마을 중 많은 수가 사라진 마을숲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서, 수백 년 전에 마을주민들에 의해 조성된 후 현재까지 보존되어온 전통적인 공간이다. 이러한 농촌마을의 마을숲은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우리 농촌이 갖고 있는 소중한 국가적 문화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마을숲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조경학, 지리학, 임학, 생태학, 민속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되어 왔는데(유제현, 1979; 김덕현, 1986; 김학범, 1991; 이원열 등, 1992; 장동수 · 이규목, 1997; 윤영환 등, 1998; 박재철, 1999; 최재웅 · 김동엽, 2000-2006; 이창석 · 유영한, 2001; 남연화 · 윤영환, 2002; 강현경 등 2004),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대통령자문 농어업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2005)는 마을숲을 「농어촌마을의 핵심경관」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으며, 마을주변 숲의 활용을 확대하고 마을숲을 경관자원, 휴양 · 휴식공간 및 소득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최근 들어 마을숲이 중요한 농촌자원으로 인식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당산숲, 마을숲의 원형과 생태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2003년에 시작된 문화재청의 마을숲 문화재 지정사업 및 산림청의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2004년에 시작된 농림부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및 2006년의 농촌경관종합

대책 수립방안, 환경부의 생태하천 만들기 10년 계획(2006-2015), 해양수산부의 아름다운 어촌 100선, 각 지자체의 농촌마을 가꾸기사업 등 당산숲 · 마을숲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당산숲 · 마을숲에 대한 충분한 연구, 자료 및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당산숲 · 마을숲의 가치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크다. 당산숲 · 마을숲의 올바른 보전 · 관리 ·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당산숲 · 마을숲과 관련된 기존 사업의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군위군 대율리(한밤마을)와 동해시 괴란마을에 있는 당산숲 · 마을숲과 관리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그 실체와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농촌경관 관련사업과 관련하여 당산숲 · 마을숲의 복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형태적, 기능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범위

마을숲에 당산숲이 포함되어 있는 사례가 많으나 통상 이를 구분하지 않고 마을숲으로 함께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주민들이 당산제를 지내면서 보호하고 있는 당산숲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당숲”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 당산숲은 『마을주민들이 당산제(堂山祭)를 지내는 숲』으로서 토속신이 살아 있는 마을의 성역으로 간주된다. 대부분 음력 정월대

보름 저녁에 거행되는 당산제는 일종의 물활론(物活論, Animism)적인 전통생활문화이다(최재웅·김동엽, 2005). 당산숲은 마을숲과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마을숲의 역할을 겸해 하나로 있기도 한다. 여기에서 마을숲은 당산숲의 목적과는 다르게 수해 예방 등을 위해 조성된 숲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마을숲에서는 당산제가 행해지지 않는다.

2. 연구대상지

사전 연구에서 강원도 동해시 괴란마을, 충청북도 단양군 북하리마을, 전라남도 화순군 동산마을, 전라북도 장수군 양신마을, 경상남도 통영시 금평마을, 경상북도 군위군 한밤마을 등 당산숲과 마을숲이 보전, 관리되고 있는 20개 농촌마을을 조사한 바 있다. 그 중 경북 군위군 부계면 대울리와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괴란마을에서 당산숲·마을숲에 대한 정비사업이 시행된 바 있어 당산숲과 마을숲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체적으로 대울리의 당산숲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으나, 괴란마을의 당산숲·마을숲 관리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조사 및 분석방법

당산숲과 마을숲의 물리적 현황을 조사하고, 그것이 원형으로부터 얼마나 변형되었는지 평가하였다. 조사항목은 당산숲과 마을숲의 면적, 공간 형태, 수종구성 및 임분구조 등을 실측하고, 마을주민들이 지내는 당산제, 숲 관리, 이용 행

태, 변형 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수목조사는 2004년 4월, 6월에 실시하고 2005년 4월, 6월에 보완 조사하였다. 숲의 수령이 대체로 100~200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소나무 등 침엽수는 흉고직경 30cm 이상, 낙엽활엽수는 흉고직경 40cm 이상인 수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당산숲과 마을숲의 조성, 유지관리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04년 12월에 마을의 이장 등 주민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여름철 외지인들의 숲 이용행태 등을 알기 위한 답사는 수시로 진행하였다. 당산제는 직접 참관하지 못하였으나 마을주민과의 면담 및 당산숲에 남아있는 흔적 등을 통해 당산제를 지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6).

III. 결과 및 고찰

1. 한밤마을과 괴란마을의 당산숲·마을숲 현황

1) 군위군 한밤마을(대울리)

대울리는 부림흥씨 집성촌으로, 마을내에 종가집 등 고택, 석불입상(보물 제988호) 등 많은 문화재가 있어 군위군에서 전통문화마을로 지정한 마을이며, 문화재청은 2004년에 이 숲을 문화재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 당산숲은 임진왜란 당시 이 마을 출신 의병장 홍천뢰장군이 이 숲에서 군사들을 훈련시키던 성역(聖域)으로서, 숲 안에 홍천뢰장군 추모비가 있다(그림 1c).

대울리 당산숲은 현재 도로에 의해 양분되어 있는데(그림 1a),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그림 2에서 당산제를 지내는 진동단이 있는 도로 위쪽은 6,468m²의 면적에 소나무

표 1. 대울리 당산숲의 현황.

구 분	당산제 (음력)	면적 (m ²)	수종 및 수	평균흉고직경 (cm)	비 고
도로 위쪽	정월 초닷새	6,468	소나무, 81	48	성역화 - 진동단 및 홍천뢰장군 추모비
			느티나무, 5	90	
도로가 띠형	-	2,016	소나무, 26	46	-
도로 아래	-	5,280	소나무, 39	51	공원화



그림 1. 대율리 당산숲의 현황.

81그루, 느티나무 5그루가 있고 진동단 바로 뒤에는 성벽의 일부가 남아 있다. 진동단 아래쪽 도로가에 띠형으로 2,016m²의 면적에 소나무 26그루가 있고, 도로 건너편에는 5,280m²의 면적에 소나무 39그루가 있다. 따라서, 당산숲의 총 면적은 13,784m²이고, 수목은 소나무 146그루(평균흉고직경 49cm), 느티나무 5그루(평균흉고직경 90cm) 등 총 151그루이다(표 1). 당산숲은 마을 입구인 북쪽에서 봤을 때 마을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그림 1a), 그림 1b에서 가운데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당산숲 전경이다.

대율리에 대한 기존의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밤마을의 옛 모습과 마을숲의 실체를 알 수 있었다. 한밤마을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 「경오년 수해」라고 불리는 큰 산사태 피해를 입었는데, 수해 발생 이전의 한밤마을은 그림 3a와 같이 제시되어 있으며, 여기에 두 개의 숲이 있었다. 하나는 마을 입구인 북쪽에 현존하는 성안숲이며, 다른 하나는 마을의 동편에 강변을 따라 소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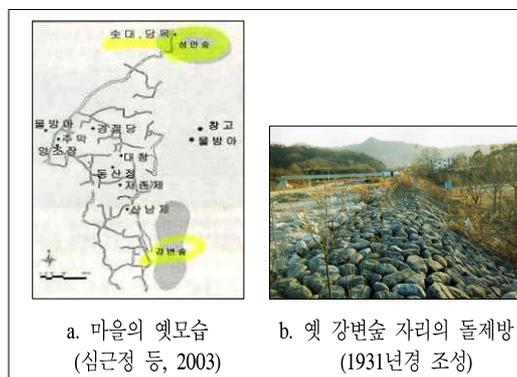


그림 3. 당산숲·마을숲의 옛모습과 마을숲 자리의 돌제방.

로 구성된 강변숲이 있었다(심근정 등, 2003). 지금은 유실된 강변숲은 마을숲으로 간주되며, 솟대와 당목이 있는 성안숲은 현재의 당산숲이다.

2) 강원 동해시 망상동 괴란마을

괴란마을은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추진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이며, 당산숲과 마을숲이 하나씩 있다. 당산숲은 마을 입구의 하천과 도로 사이에 있으며(그림 5), 면적 3,198m²에 소나무 19그루(평균흉고직경 53cm), 돌배나무 1그루(흉고직경 95cm), 상수리나무 등 낙엽활엽수 5그루(평균흉고직경 56cm)가 있으며, 숲내에 성황당이 있다. 마을숲은 도로 우측에 벗나무가 열식되어 있는 동산숲으로서(그림 4b), 둘레길이가 248m이며 소나무 118그루(평균흉고직경 40cm)가 있다. 흉고직경이 30cm 미만인 소나무는 48그루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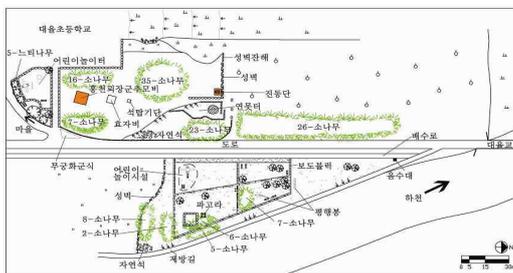


그림 2. 대율리 당산숲 현황도.

표 2. 괴란마을 당산숲·마을숲의 현황.

구 분	당산제(음력)	면적(m ²)	수종 및 수	평균흉고직경(cm)	비고
당산숲	정월초하루, 5월 5일	3,198	소나무 19	53	성황당
			돌배나무 1	95	
			낙엽활엽수 5	56	
마을숲	-	둘레길이 248m	소나무 118	4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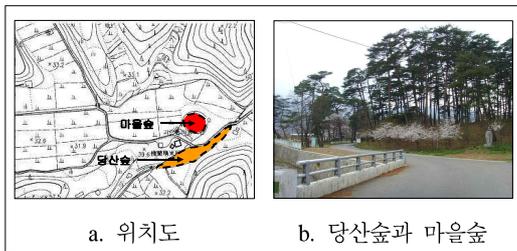


그림 4. 괴란마을 당산숲·마을숲의 현황.



그림 6. 각 마을의 당산제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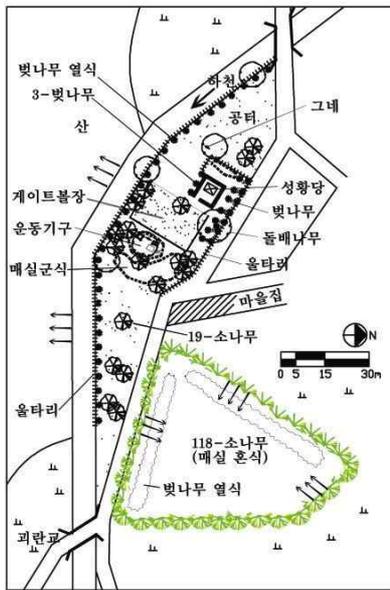


그림 5. 괴란마을 당산숲·마을숲 현황도.

2. 한밤마을과 괴란마을 당산숲·마을숲의 이용 및 유지관리

1) 당산제

당산제는 당산숲이 현재까지 마을주민들에 의해 수 백년 이상 대(代)를 이어 보호될 수 있었던

원인이다. 한밤마을은 당산숲내의 진동단(鎭洞檀)에서 음력 정월초닷새 새벽 1시에 당산제를 지낸다. 그림 6a는 2005년 설 연휴를 이용하여 답사한 한밤마을 당산숲인데, 진동단에 내걸린 금줄로서 주민들이 당산제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주민에 의하면 1950년에 당산나무인 느티나무가 고사하자, 마을사람들이 그 자리에 사각형의 긴 입석을 세우고 이것을 당산나무로 여겼는데, 이것이 진동단으로서 즉, 돌로 만든 당산나무라고 할 수 있다. 입석 옆에는 檀紀 四二九九年으로 적혀 있다. 1930년에 마을이 큰 산사태 피해를 입었는데, 그 당시 며칠씩 폭우가 내리고 마을 위쪽의 팔공산 자락 하나가 무너져 내리면서 토사와 급류가 마을숲을 뚫고 마을을 덮쳐 대규모 인명피해를 내고 가옥과 농경지가 유실되었다고 한다. 마을숲은 그 때 사라졌다. 한밤마을은 2005년까지는 당산제를 지냈으나 그 후 현재는 당산제가 중단된 채로 있다.

괴란마을은 당산숲 내 돌담에 둘러싸인 성황당에서 음력 정월초하루와 5월 5일 등 일 년에 두 번 당산제를 거행한다. 그림 6b는 2005년 1월

표 3. 한밤마을과 괴란마을 당산숲 · 마을숲의 이용, 관리실태 및 변형.

마을	구분	이용 및 관리	변형이 가해진 부분		문제점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군위군 대울리	도로 위쪽	출입하지 않음	-	-	-
	도로가 띠형	가로수 역할	과수원	-	-
	도로 아래	외지인 휴식처	잔디밭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음수대	유원지화
동해시 괴란마을	당산숲	마을주민 휴식	벗나무, 매실나무	게이트볼 구장, 각종 운동 시설물	당산숲으로서의 가치 소멸 위험
	마을숲	-	벗나무, 매실나무	-	-

말 괴란마을 당산숲 안의 성황당 모습인데, 성황당 앞의 철봉에는 지난 해에 지내고 묶어 놓은 금줄이 남아 있었다.

2) 한밤마을과 괴란마을 당산숲 · 마을숲의 이용 및 관리 실태

한밤마을의 경우, 도로 아래쪽 숲은 보호를 포기하고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용한 상태이며, 도로 위쪽의 숲은 성역화 지역으로서 둘레에 담을 쌓아 철저히 보호하고 있었다. 외지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행락 행태로부터 진동단이 있는 지역을 구분하여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도로 위쪽 숲은 대울초등학교 교문 좌측의 느티나무 구역에 시소, 그네 등 어린이 놀이 시설이 설치된 것 외에는 변형 없이 유지되고 있다(그림 2). 흥천뢰장군 추모비, 효자비, 석탑기단, 연못이 있는 곳은 오래 전에 조성된 것이며, 흥천뢰장군 안내문이 추모비 앞에 설치되어 있다(그림 7a). 그림 7b는 진동단이 있는 도로 위쪽

숲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곳은 도로변에 높이 80-100cm의 낮은 돌담이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외지인들은 물론 마을주민들도 출입을 삼가하고 있다. 그림 7c는 어린이 놀이시설물 등이 있는 도로 아래쪽 숲으로서, 이 곳에는 시소, 미끄럼틀 등 어린이 놀이시설, 파고라, 음수대 등이 설치되어 외지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다. 도로 옆의 띠형 숲은 사과 과수원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남아있게 된 부분으로 보인다.

숲은 마을주민들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군유림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다. 2005년 8월 군청에 의해 도로 아래쪽 숲에 있던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이 제거되면서 송림지역의 훼손 방지를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과 함께 당산숲 전체에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현재는 출입이 제한된 상태이다(그림 7d).

대울리와는 대조적으로 동해시 괴란마을의 당산숲은 당산숲의 특성과 아름다움이 무시된 채



그림 7. 대울리 당산숲의 이용 및 관리현황.



그림 8. 괴란마을 당산숲·마을숲의 이용 및 관리현황.

무분별하게 정비사업이 이루어져 당산숲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될 위험에 놓여 있다. 당산숲이 벚나무와 각종 체육 시설물로 채워진 결과 당산숲 본래의 형태와 가치는 사라지고 외지인들의 눈요기를 위한 값싼 유원지로 변질되고 있다. 벚나무는 성황당 옆에 3그루(그림 8b), 당산숲 입구에 4그루, 하천변에 1열 식재, 도로가에 2열 식재가 되어 있는데, 벚나무는 당산숲과는 전혀 상관없는 수종으로서 당산숲의 고유경관을 해치고 있다. 성황당 앞에는 게이트볼 구장과 각종 운동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게이트볼 구장은 잡풀로 덮여 있었고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그림 8c). 매실나무는 당산숲 입구, 도로변, 성황당 뒤쪽에 식재되어 있었고, 당산숲 입구에 길게 놓여진 공간은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괴란마을의 마을숲은 마을입구의 다리를 건너 바로 보이는 동산숲인데 그 앞과 마을쪽에 벚나무가 2열로 식재되어 있었고(그림 5), 매실나무는 마을숲 전체에 식재되어 있었다(그림 8d). 괴란마을의 당산숲·마을숲은 원래 마을 공동소유였으나 동해시로 이관되어 현재는 시소유지로 되어 있다.

3. 한밤마을과 괴란마을 당산숲·마을숲의 관리 방안 고찰

1) 한밤마을

2004년에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 면담에서, 주민들은 당산숲을 마을의 귀중한 유산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걱정 속에서 소나무들이 고사하면 마을의 큰 불행이라

며 「영구보전대책」이 필요함을 호소하였다. 주민들은 여름에 몰려드는 외지관광객들의 차량이 숲 안으로 함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숲 내에서 취사, 야영 등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지만 균유림이기 때문에 마을주민의 힘만으로는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행락행태를 막을 수 없는 형편이다. 2005년 8월경 군청에서 당산숲 둘레에 설치한 철제 울타리는 이러한 외지인들의 행태로부터 숲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당산숲의 가치를 인식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었다면 숲의 폐쇄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천연기념물 제93호인 강원도 원주 성황림의 경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출입금지용 철책을 제거하고 당산숲을 개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철책 설치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수준으로 복원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진동단이 있는 도로 위쪽의 숲은 현재와 같은 보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도로 아래쪽 숲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편의 시설물을 유지하되, 숲 내에서 취사와 야영 등은 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철책 울타리는 제거하고, 숲 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경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당산숲은 임진왜란 당시 홍천퇴장군이 군사들을 훈련시키던 유서깊은 장소로서, 그러한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안내판을 새로 마련하고 역사교육 장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사라졌으나 그 실체를 알게 된 마을숲, 즉 강변숲은 마을숲 경관의 원형을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고증을 거쳐 복원할 필요가 있다. 1930

년 산사태 피해 이후 옛 강변숲 자리에 자연적으로 쌓은 제방 앞에는 그 당시 일제가 만든 커다란 「수해기념비」가 선명한 글씨와 함께 지금도 남아 있다. 이곳에 강변숲이 복원되면 마을숲의 원형 복원, 수해 및 재해의 예방 수단 확보, 마을의 환경과 경관 보전 등의 의미와 함께 현재 당산숲에 집중되어 있는 외지인들의 행락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괴란마을

괴란마을은 훼손 정도가 심하여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당산숲에 무분별하게 식재되어 당산숲의 고유경관을 변질시키고 있는 벚나무, 매실나무는 제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주 성황림에서는 조림사업으로 식재된 외래수종을 제거하고 원래의 상태로 복원된 바 있다(남연화 · 윤영환, 2002). 또한 당산숲 경관을 해치며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는 게이트볼 구장과 운동시설물은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이다. 동산의 마을숲 전면에 열식된 벚나무는 이팝나무 등 다른 자생수종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3) 당산제의 의미

농촌의 환경과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U(유럽연합) 등에서 실시하는 국제적 논의의 핵심은 농촌의 문화경관, 전통경관에 대한 존중·보전 노력과 그 방법론의 연구이다. EU 등 세계 각국은 경관직불제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자국 농촌의 전통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개최된 OECD의 제5차 농촌개발정책 관련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핵심요지는 「농촌경관 관리의 중요성 증가」, 「농촌사회 자본의 중시」로 요약될 수 있는데(주OECD대표부보고서, 2007), 사회자본으로서 농촌공동체의 주체역량과 결속은 농촌인구의 감소 등 환경변화와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정기환 · 심재만, 2004). 마을 주민들이 매년 거행하는 당산제는 우리 농촌

공동체의 주체역량과 결속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을숲이 점점 훼손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의 약화가 근본 원인이므로 마을숲의 실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조치에 앞서 마을숲에 깃들여 있는 문화적 의미와 행위를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이다(김학범, 2005). 「경오년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한밤마을은 공간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복구되었는데, 현재 마을사람들은 제사 및 마을 동제를 통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한밤마을의 고유한 풍습으로 자리잡고 있다(심근정 등, 2003). 한밤마을의 의례경관이 담고 있는 의미는 풍수적 측면의 氣와 토착신앙의 神을 통하여 자연을 이해하는 마을사람들의 미적, 총체적 경관의식에 있다. 마을사람들은 경관을 氣나 魂이 내재한 것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마을경관을 신성화하여 그 경관에 의지하여 복을 얻고 자신들의 불안과 재앙을 막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례경관의 의미 발견은 우리나라의 환경개발 과정에서 이용자와 계획가 사이의 의견차를 좁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장동수, 2001). 한밤마을의 당산숲이 이와 같이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높은 평가를 받아 온 이유는, 그것이 실생활과 동떨어진 ‘박물관경관’(Museum landscape)이 아니고, 당산제에 의해 ‘살아 있는 문화경관’(Living cultural landscape)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밤마을의 주민들은 조상들이 소중히 물려준 이 당산숲에서 행해지는 당산제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2005년을 끝으로 폐지하였는데, 당산제의 폐지와 함께 당산숲으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었으며 더 이상 당산숲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다. 당산제의 폐지로 마을주민들에 의한 당산숲 관리와 적극적인 보호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전통문화가 존중되며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농촌마을에 대한 지원이 여러 모로 모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한밤마을의 결정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IV. 결 론

한밤마을과 괴란마을의 사례를 통하여 당산숲·마을숲은 관리 방법에 따라 그 형태와 가치가 크게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자료를 통해 한밤마을에 마을숲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당산숲·마을숲의 개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당산숲·마을숲의 복원 과정에서 고유경관을 변질시키는 수종의 식재는 삼가해야 하며, 당산숲·마을숲의 역할과 문화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당산숲·마을숲은 소극적인 방법로나마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래에 관계당국의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당산숲·마을숲에 대한 정비사업을 벌인 결과 그 형태와 가치가 변질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당산숲·마을숲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농촌경관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당산숲·마을숲은 농촌의 전통경관과 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당산숲·마을숲을 올바르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의 주체적인 관리, 전문가의 도움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 용 문 헌

- 강현경·방광자·이승제·김학범. 2004. 생육환경 분석을 통한 마을숲의 관리방안-경상도와 강원도의 주요 마을숲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2) : 63-74.
- 김덕현. 1986. 전통촌락의 洞藪에 관한 연구-安東 내앞마을의 開湖松을 중심으로-. 서울대지리학회지 13 : 25-33.
- 김학범. 1991. 한국의 마을원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학범. 2005. 마을숲과 문화. (사)생명의숲국민운동 2005 전통마을숲의 이해와 복원운동의 방향 심포지엄 초록집. pp.5-22.
- 남연화·윤영환. 2002. 시대적 배경을 통해 본 마을숲의 변천과 보존-성남리 성황림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0(2) : 23-32.
- 농림부. 2006.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농촌경관종합대책 수립방안. 농림부 보고서.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005.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농특위 보고서.
- 박재철. 1999. 농촌정주생활권내의 마을비보숲과 마을습터숲의 비교 고찰-진안군 지역을 사례로-. 한국조경학회지 27(3) : 32-38.
- 심근정·김재호·김수봉. 2003. 산사태 발생지역의 경관변화와 주민의식 : 1930년 팔공산 산사태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1(3) : 42-53.
- 유제현. 1979. 농촌경관의 형태적 연구-여주·이천지방을 중심으로-. 서울대지리학회지 6 : 96-115.
- 윤영환·김학범·장동수·김정태. 1998. 강원도 동해안지역 정주지 구성요소로서 풍숲(風藪)의 경관과 그 효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6(1) : 59-81.
- 이원열·서호석·이대섭·조현재. 1992. 전통생활환경보전림의 실태 및 보존대책. 임업연구원 보고서.
- 이창석·유영환. 2001. 한국의 문화경관, 그 실제,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가치평가. 한국생태학회지 24(5) : 323-332.
- 장동수·이규목. 1997. 경주·포항시 전통도시숲(읍수·임수)의 보존과 관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5(1) : 1-15.
- 장동수. 2001. 한밤마을 儀禮景觀의 意味.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9(1) : 1-10.
- 정기환·심재만. 2004. 사회자본 측정지표 개발-농촌지역의 사회자본과 지역사회발전에 관한 연구(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

- 고서.
-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2007. 제5차 농촌개발 국제회의 결과. 주OECD 대표부 보고서.
- 최재웅 · 김동엽. 2000. 마을숲문화가 있는 농촌 마을숲의 구조 및 보전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8(3) : 51-64.
- 최재웅 · 김동엽. 2003. 농촌 문화경관으로서 강릉시 구정리 마을숲의 경관 특성. 대한민국도 · 도시계획학회지 38(4) : 171-181.
- 최재웅 · 김동엽. 2005. 하천경관으로서 당산숲 · 마을숲의 경관생태학적 기능 고찰.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학술지 4(2) : 31-55.
- 최재웅 · 김동엽. 2006. 농촌 문화경관 관련시책과 마을숲 · 당산숲의 위상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4(3) : 41-58.
- 환경부. 2007. 생태하천 만들기 10년 계획(2006-2015). 환경부 보고서.